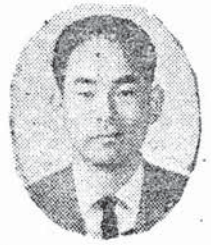




追憶과 念願과
—龍水가 좁은 길을 걷던 時節—
梁淳



農과 더 붙어
—農에 더 理想을 묻고—
吳現道

忘却의 癖

梁奉圭

조라한 落書
梁奉圭

忘却의 癖
梁奉圭

同門學窓隨想

梁淳

同門學窓隨想
梁淳

失意

宋大鍾

失意
宋大鍾

辯明의 章

宋大鍾

辯明의 章
宋大鍾

農과 더 붙어

吳現道

農과 더 붙어
吳現道

追憶과 念願과

梁淳

追憶과 念願과
梁淳

忘却의 癖

梁奉圭

忘却의 癖
梁奉圭

同門學窓隨想

梁淳

同門學窓隨想
梁淳

同門學窓隨想
梁淳

忘却의 癖
梁奉圭

追憶과 念願과
梁淳

新換率이國民經濟에 미치는影響

을 힘써유계
 133號1 榮弗公正換
 率을 바꾸고 25%를減
 低한으로 하는
 外幣兌換制度 決定
 日부터 시행키로
 內 到 하우라침사
 內 到 來인치는 半으로
 減인 셈이다. 그럼처럼
 다라도 通貨의 購買力은
 半으로 減인 셈이고 이
 때 특히나 日金과 米價
 및 고가의 金貨와 換
 金의引上을 敢行하는底
 意는 어찌되는가
 2年 換率引上의 不可
 避性을 다룰과같이 列
 强하고있다.
 3 理由로 通貨
 對外価値을 實勢에 準
 한것이다

李 珣

[illegible][illegible][illegible]

한티數그역논가문명다

港口的 鳴咽이
출렁이는 꽃밭처럼
절은 모듬으로
鶯謳하던
절은 女人들은
당연을 내내는 어리석음.
풍성하게 피어나는 怨聲이
마지막 안타까운 汽笛이 된다.

十字路는 異邦人
소금내 풍기는 郷愁에
모두가 돌아선 소식을
그런 哭調을 너는
의지탁게 노래하는가
아우성치는가
다시 鶯謳의 鳴咽이
나에게 배아리칠 순 없는가.

그리하여 낯익은 異域
사람들은 일몰을 마주
다정한 임신도 흐르게 될 것을.
우리는 서로 이야기하기 하네.

港口的 鳴咽이
당신의 深海로
마침내 우리는
절은 바다로 서서
헤어지게 되리.

가까이 서서 보면
각각 부서지는
港口的 鳴咽이
四面에선 낯설은 노래가
들리는
허탈한 가슴의 廢墟...
따가운 무게로써는
사람도
지쳤다.

표정없이 발돋움한

來來事 實實情 度度其比 아에 會한 상은

학교에 갔다. 날이 었다.
물론 오를었다.
마에 아침 식사를 받
아 걸어서. 그러지
수 있을. 말만 할 수
있을. 소용소용 몇
다. 그래서 나는 켜
것들의 뒷물 그늘진
곳을 찾아 갔다. 나
가다 있새다. 이
것이 아까우리만 같
게 조롱 조롱 뱉혀
있는 그 위에 그 지
벌면 나가파졌다.
향긋한 풀 내음새가
후각을 자극키고 또
무가치 새끼였도 보
이는 아침 하늘 조
각은 더욱 하얗다
아르지도 물고기 시
간이 이른대 캄캄스
안은 휴일처럼 조용
그런데 마물은 한
결 어떨어지고는
공허한 마음은 머
위에 발굽에서 내려
창공에 마음껏 날개
펴고 간다. 비가
없다. 이럴때면 나
아주 희금애야 연은
철술바릇으로 누를
취할 푸른색의 눈을 뒤집
기 시작한다. 어느
래 돌아 남은 공조
라도 없나하고...
태보된 기복하는데 이
런 약속이라도 한 듯
이 어느 주머니에선
가는 꼭 하나 솟은
나오게 마련이다.
상제 너는 니코친 채
독자네가 아니므로 캐
시니는 않는다. 다
Smoking도 정거하
지 않는 것이다.

▲併設敎育科에서는 저
음으로 男女學生이
정리 순장하 獨斷時間
을 가졌다고!

의 명은三四二로
差하든 輸入原料中二
비례분을加算하면 이
것이다. 그러므로 나탈
되었다.

인상으로 수입소비재가
저렴하다는 민간지식을
증대시킨 可能性이
있다. 一九五九年七月一
日 家計調査 報告書
資料에 依한것 報告
各費目別 소득탄력계
열되는 各各 ○八의
부비는 五・二雜費(小
消費)二九로서 의
부비의 탄력성이 가장
크며 다음이 生活費順
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先進國의 生活費를 모
방하고 있는 하나의 예로
효과적인 것이다. 이런
사상은 原稿 인간과 유
사의 一大 요소로서의
패턴으로서 점차적인
變行을 進行하면 予
想된다.

이러한 과업 이외에
도 保有財産의 가격하
락으로 인한 화폐非保
護의 경향이 증대되
고있어 자본주의 도식사상 한
물사상을 動搖한 우리
가 잊지 않아야 할
이상과 같이 환율은
상으로 인한 國民經濟
에서 여러면에서의
影響과를 분석 고찰하
여 있는바 다음과 같
기하는 것가지각조
와 副作用을 除去改
善하여 오조치를 取
정치현 現행한 今後의
당국의 方針시원 具
體적세제 國稅의 원
조가 없으면 경제제
제가 없으며 세제의
하나 요소로서의 불

차점들이 제법 분배
되어 불매한다 그
나도 물매다 그
(?)고개를 들어 그
곳으로 시선이 갔다
보니 이번 세수
가 된 새 짙 옷을
입은 두 분 처녀
있었다. 순간 하나니
리데 떠오르는 것이
있었다.

「남편 여자가 말
안 하는데 매력이래
그때서 안알려만
나도 말 안할테니
그랬어? 나도 그
뻔잖아!」

하고 뉴 웨이스틀이
이 뒷부분이 제법 인
지한(?) 대타본을
출처 들고는 웃음을

다 나타내는데 속으로 미
스치는 말이 나왔다.
「너는 속으로 미
스치는 말이 나왔
다.」

隨想隨筆集이 나왔다。

.....

〈永遠斗〉

과의 對話〉의 측면과 같은 책이다. 모두가 쉽고

이러한

다. 인생이

되었고 世界가 해결되어있다. 우리들이 궁극목적

當 發 行

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이 두 가지 관점의 차이는, 이 두 가지 관점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있다.
